

땅값 광주2.8%·전남 2.6% ↑…거래는 감소

지난해 전국 지가 2.7% 상승…74개월 연속 올라

신공항 건설 제주 8.33% 최고…지방 상승률 더 높아

지난해 전국 땅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거래량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토지가격은 2.7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가는 20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작년 지가 상승 폭은 전년 2.40%보다 컸고 소비자물가변동률 1.0%보다도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53%)보다 지방(2.99%)

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신공항 개발이 추진되는 제주가 8.3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외에 세종(4.78%), 부산(4.17%), 대구(3.93%), 대전(3.45%), 강원(2.92%), 광주(2.82%)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2.97%)은 2013년 9월부터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펼치고 있다. 전남은 2.6%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보다 적게 올랐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8.79%)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경남 거제시(-0.48%)와 울산 동구(-0.41%)는 조선업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구도심 건물 노후와 등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1.01% 밖에 오르지 않아 주변을 하위 4위를 기록했다. 땅값은 상승한 반면 토지 거래량은 총 299만5000필지(2176㎢)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 3.0%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111만2000필지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지역별로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17.8%), 경기(7.3%), 충북(4.0%) 등은 증가한 반면, 세종(-28.0%), 대구(-22.5%),

울산(-20.7%), 광주(-16.8%), 경북(-15.8%), 부산(-14.0%) 등은 주택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7.8%), 경기(12.6%), 서울(4.6%)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전(-21.8%), 부산(-17.1%), 대구(-15.9%), 광주(-14.8%), 경북(-11.1%), 제주(-8.2%), 경남(-7.8%), 전북(-2.4%), 전남(-1.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지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6.94 (+1.18)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코스닥 609.64 (-3.29)	↑ 환율 (USD) 1166.00원 (+0.10)



광주은행, 희망공부방 학생에 대학 장학금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5일, 광주은행 본점 16층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호 수혜 학생 격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 광주은행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 공부방 1호 수혜 학생인 박태열군이 참석했다. 박태열군은 2015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공부방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책상과 의자, 노트북, 책장, 도배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학업에 충실하여 2017년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또한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2년 전 공부방을 직접 꾸며주는 인연을 맺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등 최근까지 멘토 역할을 해주었다. 광주은행 김한 은행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박태열군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후원했다”며 “올해에도 지역 내 저소득가정과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하기는 공부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삼성 무풍에어컨 벽걸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25일 바람 없이 냉방하는 ‘무풍에어컨’ 2017년형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풍에어컨은 지난해 출시돼 선풍적인 반응을 얻은 제품이다. 올해에는 작년에 선보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벽걸이형 모델까지 추가했다. 무풍에어컨은 바람에 냉기를 실어 내보내는 대신 약 2만1000개의 미세한 ‘마이크로 홀’을 통해 냉기를 발산하는 신개념 에어컨이다. 자극적인 찬바람이 직접 신체에 닿지 않게 때문에 쾌적한 냉방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올해 제품은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더 스마트하게 진화했다. 또 침실 같은 개별 공간에서도 무풍 냉방의 쾌적함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벽걸이형 제품이 추가됐다. 가격은 무풍에어컨 스탠드형의 경우 278만~543만원(단품 기준), 벽걸이형은 90만~11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달부터 4대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다음 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현행 1%에서 국제와 같은 0.8%로 인하된다고 25일 밝혔다. 체크카드는 0.7%로 혜택이 더 크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연간 32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나눔’의 광주국세청 복지시설 방문 성금·위문품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민속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24일 광주 용두동 소재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광주사랑의 집’과 한부모 가정(지적장애아 2명)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면서, 경제불황 등으로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독거 노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나눔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쏟아진 ‘5만원권’

설 연휴 발행비중 전년비 5.6%P ↑…1만원권 26% 하락

광주·전남과 전북지역에서 설 연휴 전 5만원권 발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 전 10일 동안 광주·전남과 전북지역에 공급한 화폐는 6340억원으로 지난해 5700억원보다 11.2%(640억원) 증가했다. 총 발행액 중 5만원권 비중은 지난해보다 5.6%포인트 증가한 70.2%(479억원)를 차지한 반면 1만원권 비중은 26% 하락했다. 설 연휴 전 5만원권 발행 비중은 2014년 52.4%, 2015년 60.1%, 2016년 64.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만원권 발행 비중은 2014년 43.8%, 2015년 35.8%, 2016년 31.4%로 줄었다. 우리 국민의 1만원권 지폐 사용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화폐발행잔액 97조3822억원 가운데 1만원권 지폐는 16조24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9851억원) 줄었다. 지폐와 동전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1년 전과 비교해 발행잔액이 줄어든 화폐는 1만원권뿐이다. 1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은 연말 기준으로 1998년(13조8625억원) 이후 1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오광록기자 kroh@

금감원 무료 상담 이용 2배 늘어

지난해 1만5563건 전년비 122% ↑…40~50대·빚 고민 ‘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자문서비스 상담 건수가 1만5563건으로 전년보다 8549건(121.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63건의 상담이 들어온 셈이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콜센터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금융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득과 지출관리를 통한 부채상환 방법, 생애주기별 재무관리법, 은퇴·노후 준비, 사회초년생 저축법 등을 알려준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1층의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전화상담 비중이 93.8%로 가

장 높았으며 온라인상담이 5.2%, 방문상담은 1.0%였다.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는 상담이 6209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피해 예방(3520건), 보험(2122건), 저축·투자(1445건), 노후 소득원(4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40~50대의 상담 비중이 76.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 비중은 13.2%, 60대 이상이 7.0%, 20대는 3.8%였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경제 M’ 코너에 매주 목요일 실제 상담사례를 올리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